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0

▶ 71회 예고
아쇼까왕은 동생 비가따쇼까가 브라흐마교에 심취하자 불교로 개종시킨다. 그런 뒤 탁실라에 가 있는 꾸날라를 위로하기 위해 특사를 보낸다. 한편, 친위대 조장은 띠쉬아락시따가 준 아쇼까왕의 가짜 명령서를 들고 간다.



아쇼까, 목갈리뿟다띳사의 설법을 듣다

아쇼까왕은 니그로다를 만난 뒤부터 미묘하게 변했다. 니그로다가 속한 불교승단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니그로다는 빠딸리뿌뜨라성으로 들어와 아쇼까왕의 호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짠달라 천민촌에서 스승 마하바루나 뒤를 이어 천민 달리뜨들과 함께 살기로 발원한 까닭이었다. 대신, 니그로다는 아쇼까라마 책임자로 율사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를 추천했다. 아쇼까왕은 즉시 니그로다의 추천을 받아들였다. 아쇼까왕이 어린 왕자였을 때 목갈리뿟다띳사가 스승으로서 불법과 산스끄리뜨어를 가르친 인연이 있기도 해서였다. 아쇼까왕이 친위대장에게 말했다.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이 언제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오?"

"소장이 강가강 동굴로 찾아가 대왕님의 명을 전했을 때 바로 오늘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문에서 기다리다가 정중하게 데려오시오."

"예, 대왕님."

아쇼까왕은 친위대장이 나가자 라다굽따 수상을 불렀다.

"나를 실망시킨 브라흐마교 수행자들을 아침공양에서 줄이고 있지요?"

"대왕님 지시대로 브라흐마교 수행자들을 줄이면서 불교수행자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선왕 때의 공양전통이니 6만 명의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시오."

"공양 장소를 아쇼까라마로 옮기었을 뿐 6만 명이 아침마다 공양하고 있습니다."

꾸꾸따라마 터에 아쇼까라마가 건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꾸꾸따라마의 낡은 건물들을 중건하고 보수한 것에 불과했다. 그렇지 않다면 거대한 규모의 아쇼까라마를 3년 만에 조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터였다.

이윽고 정오 무렵에 친위대장이 목갈리뿟다띳사를 데리고 정궁 접견실로 왔다. 아쇼까왕은 의자에서 일어나 목갈리뿟다띳사를 맞이했다. 25년 만의 재회였다. 마른 과일 같은 목갈리뿟다띳사의 얼굴에는 잔주름살이 가득했고 다리는 지팡이처럼 가늘었다.

"사문이시여, 어서 오시오. 얼마만인가요?"

"소승을 잊지 않고 불러주시니 감개무량합니다. 친위대장님이 소승의 동굴로 오시어 대왕님께서 저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쇼까라마의 책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문님이야말로 아쇼까라마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불렀습니다."

"저는 능력이 모자랍니다. 미투라에 은거하고 있는 우빠굽따 사문을 만나십시오."

"사문은 어린 시절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으니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왕이시여, 그렇다면 우빠굽따 사문이 올 때까지만 맡겠습니다."

그제야 아쇼까왕은 우빠굽따를 만났던 일을 떠올렸다. 옛 아반띠국 부왕으로 가는 도중 옛 왐사국의 수도 꼬삼비에서 만나 짧은 법문을 들었는데, 미투라 출신의 우빠굽따는 아난다의 가풍을 흠모하는 사문으로서 붓다가 머물렀던 성지를 순례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다.

"어린 시절 사문께 무례한 줄도 모르고 고집만 피우던 일이 생각나오."

"그때 고향 베살리로 떠났다가 강가강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사문께서 아쇼까라마를 맡아주시겠다고 하니 안심이오. 나는 사문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들어줄 것이니 언제든 말씀해주시오. 나는 불교승가가 원하는 만큼 보시를 하겠소."

아쇼까는 옆에 있는 라다굽따에게 지시했다.

"당장 아쇼까라마에 공양하러 오는 불교수행자들에게 가사를 한 벌씩 보시하시오."

"대왕님이시여, 고맙습니다."

"사문이시여,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심오한 가르침을 줄 수 없겠소?"

"누구나 지혜롭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고타마 붓다께서 다음과 말씀하셨지요."

물을 다스리는 이는
물길을 다루고
화살을 만드는 이는 화살을 다루고
나무 다듬는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현명한 이는 자기마음을 잘 다룬다.

"대왕님이시여, 붓다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인연담은 이렇사옵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담마빠다(법구경)〉에 나오는 인연담을 설하기 시작했다. 붓다께서 사밧티 제따 숲에 계실 때였다. 한 상인의 아내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 어리석고, 눈멀고, 귀먹은 집안사람들이 놀랍게도 모두 현명해졌다. 축복이 내린 경사였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 이름을 빤디따라고 지었다. 상인의 아내는 아기가 성인 같은 느낌이 들어 "내 아이가 성장하면서 무엇이 되고 싶어 하든 간섭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아이는 일곱 살이 되자, 어머니에게 "장로 밑에서 수행승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상인의 아내는 아이를 싸리뿟따 장로에게 출가시켰다. 싸리뿟따가 어린 빤디따의 출가를 허락하자 그의 부모는 7일간 사원에 남아서 수행승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8일째 되는 날, 싸리뿟따는 빤디따에게 가사를 수한 뒤 발우를 들게 하고 마을로 갔다. 싸리뿟따는 길을 걷는 동안 빤디따에게 수행자로서 동작 하나하나의 위의를 가르쳤다.



아쇼까왕은 목갈리뿟다띳사의 설법을 흥미롭게 들었다. 수행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당당한 위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곱 살의 빤디따는 조카 니그로다를 연상시키어 더욱 귀를 기울이게 했다.

빤디따는 싸리뿟따를 따라가면서 길가의 도랑을 보자 물었다.

"존자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밭을 개간하기 위해 물을 이리저리 이끄는 물길이라오."

그러자 빤디따가 다시 물었다.

"존자여, 물은 마음이 있습니까?"

"벗이여, 없지요."

싸리뿟따는 빤디따가 어렸지만 출가했으므로 벗으로 불렀다. 빤디따도 이제는 나이를 떠나서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인 것이었다.

"존자여, 마음이 없는 물이라도 원하는 곳으로 끌어댈 수 있습니까?"

"벗이여, 그렇다오."

빤디따는 싸리뿟따의 대답을 들은 뒤 혼자서 생각했다.

'마음이 없는 물을 원하는 곳으로 끌어대는데, 왜 마음이 있는 이들이 자기마음을 스스로 닦는 수행자의 삶을 살지 못할까?'

빤디따는 또 길을 가다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화살재료를 불에 구워 눈썰미로 바로잡는 것을 보았다. 빤디따는 또 싸리뿟따에게 물었다.

"존자여, 화살에 마음이 있습니까?"

"벗이여, 없지요."

빤디따는 또 생각했다.

'마음이 없는 화살을 불로써 바로잡는데, 왜 마음이 있는 이들이 자기마음을 스스로 닦는 수행자의 삶을 살지 못할까?'

빤디따는 또 길을 가다가 나무토막으로 수레바퀴를 만드는 목수를 만났다. 빤디따는 또 싸리뿟따에게 물었다.

"존자여, 나무토막에 마음이 있습니까?"

"벗이여, 없다오."

빤디따는 또 생각했다.

'마음이 없는 나무토막으로 수레바퀴를 만드는데, 마음이 있는 이들이 자기마음을 스스로 닦는 수행자의 삶을 살지 못할까?'

이윽고 빤디따는 길에서 싸리뿟따에게 가사와 발우를 맡기고 수행에만 전념하려고 결심했다. 싸리뿟따는 그 자리에서 수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수행하도록 당부했다. 빤디따는 즉시 싸리뿟따의 방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다. 그가 정진하는 동안 제석천의 보좌가 뜨거워졌다. 제석천은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해하다가 빤디따가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제석천은 하늘의 신들에게 빤디따가 있는 사원을 보호하게 했다. 싸리뿟따는 빤디따가 먹을 음식을 탁발해 왔다. 붓다는 빤디따가 곧 거룩한 경지를 성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붓다가 싸리뿟따를 불러 말했다.

"싸리뿟따여, 무엇을 가져왔는가?"

"세존이시여, 음식입니다."

"음식은 무엇을 주는가?"

"느낌입니다."

"느낌은 무엇을 알게 하는가?"

"몸입니다."

"몸은 무엇을 알게 하는가?"

"접촉입니다."

붓다와 싸리뿟따의 대화 요지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었다. 굶주린 이가 음식을 먹으면, 허기가 사라져 즐거운 느낌을 준다. 즐거운 느낌의 결과는 몸에 생기를 준다. 몸에 생기가 생기면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 그제야 정신적으로 '나는 이제 행복하다.' 하는 생각으로 몸이 활동, 즉 대상들과 접촉한다. 마침내 붓다와 싸리뿟다가 대화하는 사이에 빤디따는 거룩한 경지를 얻었다. 붓다는 싸리뿟따에게 말했다.

"싸리뿟따여, 빤디따에게 가서 음식을 주어라."

싸리뿟따는 빤디따가 정진하는 거처 앞으로 가서 방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빤디따가 문을 열고 나와 싸리뿟따가 주는 음식을 받아 한쪽에 놓았다. 그런 뒤 싸리뿟따에게 부채를 천천히 부쳐주었다. 싸리뿟따가 말했다.

"빤디따여, 아침을 들라."

"존자여, 당신은?"

"나는 아침을 먹었다오."

이렇게 해서 8세의 빤디따는 연못에 활짝 핀 수련처럼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 거룩한 경지를 얻고는 싸리뿟따가 탁발한 음식을 먹었다. 이윽고 붓다가 수행승들에게 말했다.

"수행승들이여, 빤디따가 거룩한 경지를 얻기 위해 정진하는 동안, 하늘사람 짠다가 월륜(月輪)을, 하늘사람 쑤리야가 일륜(日輪)을 끌어다 놓고, 네 하늘나라의 왕들이 사방을 보호했고, 신들의 제왕 제석천이 문고리를 수호했다. 나도 앉아 있지 않고 싸리뿟따의 거처 문지방으로 가서 나의 아들 빤디따를 살펴보았다."

목갈리뿟다띳사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타마 붓다께서는 빤디따의 사연을 아시고 네 마디의 시를 읊조린 것입니다."

"사문이시여, 빤디따는 내 조카 니그로다를 연상시키는구려. 어린 니그로다를 보고 내가 왜 위의를 느꼈는지 이제야 알겠소. 오, 나 혼자만 붓다의 담마를 듣기보다는 마우리아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붓다의 담마를 듣고 행복하기를 바라오. 무슨 방법이 없겠소?"

"대왕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서 붓다의 담마를 다 설할 수는 없습니다. 8만 4천의 담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쇼까왕은 감동하여 말했다.

"백성들이 붓다의 담마를 하나씩만 외우고 실천해도 더 없이 행복할 것이오. 나는 8만 4천 개의 사원을 지어 사문들이 각 사원에서 담마를 한 개씩 설하도록 하겠소."

"대왕님이시여, 잠부띠바에는 8만 4천 개의 도시가 있으니 각 도성에 하나씩 사원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문이시여, 나는 약속하겠소. 3년 안에 8만 4천의 도시에 하나씩 사원을 건립하겠소."

그런데 라다굽따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목갈리뿟다띳사는 감격스러워했고, 아쇼까왕은 감동했지만 라다굽따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잠부띠바 전 도시에 8만 4천 개의 사원을 건립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나라의 재정이 바닥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계속〉

